

## 국제물류협 “내년 FIATA 부산 세계총회 성공 총력”

국회의원·기관단체 인사 대거 참석, 저녁 만찬과 신년음악회 ‘성료’

한국국제물류협회(회장 김병진)가 2월 22일 마포 가든호텔에서 ‘2019 정기총회 겸 신년음악회’를 열고, 내년 ‘FIATA 부산 세계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협회 운영체제의 이원화를 통해 회원사들을 위한 전문적인 협회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총회는 회원사 633개사 중 위임포함 323곳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 감사 보고서,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등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협회 김병진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2020 FIATA 세계총회’ 유치를 필두로 모든 관련 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했다. 한국국제물류협회가 물류 중심에 선 쾌거다. 2020 FIATA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 물류산업이 세계 속에 자리 잡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협회는 앞으로 전문분야 특기를 인정받은 5개 분과위원장을 부회장이 맡아 보다 전문적으로 협회를 이끌어간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올해 회원사 지원사업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의 건전한 영업질서 정착 및 업계 위상 강화 △해상·복합운송 관련사항 개선 및 업무지원 △악성 미납 화주 및 파트너에 대한 대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및 조사연구로는 △물류정책기본법·시행령 시행 관련 업무 △국제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자문위원단 발족 △국제물류주선업 관련 각종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고용노동부의 각종 훈련사업 및 국제물류아카데미 연수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협회 올해 예산안은 14억 5,000만원이다.

협회 사무국에는 지난해 임직원들의 퇴직 등으로 현재 조경규 이사, 임택규 부장 외 팀장 1명, 대리급



직원 4명, 사원 1명 등 총 8명이 근무하고 있다. 2018년 가입사는 11개사로 글로벌티엘에스, 파멕스 해운항공, 상에이치케이티씨, 카고솔루션, 제일사, 이매진흥딩스, 월드코, 에이이이글코리아, 동덕로지스틱스, 이지로지스, 에이비씨로지스 등이다.

한편 이날 총회는 유공자 표창에 이어 만찬과 SBS 김정택 예술단의 신년음악회가 진행돼 눈길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은 의원,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청와대 일자리수석 이용선 비서관 등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유공자 표창에서는 코스모항운 김기범·중앙국제운송 문상권 및 롯데관광 전계영 대표이사가 서울시장상을, 광진티엘에스 김경호 대표와 서도상선 문정형 대표가 부산시장을 수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상으로 퓨마스로지스틱스 배정환·티엔씨글로벌 손영철·자이언트네트워크그룹 원제철 대표가, BPA 사장상은 카고솔루션 강경원·은산해운항공 양재생 대표, IPA 사장상은 청조해운항공 강현호 대표와 고려종합국제운송 권오인 대표가 각각 수상했다. KIFFA 회장 공로패는 카고파트너코리아 이정환 대표와 케이지엘 이하창 대표가 받았다.

## 해운대리점협 이재훈 신임협회장 선출

22대 보선 임원 선정, 신임회장, 부회장 3인, 감사 2인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가 지난해 12월 31일부로 회장직에서 사임한 이상직 협회장을 대신해 우성마리타임의 이재훈 사장을 신임협회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신임 부회장과 감사도 새로 선출해 향후 2년 동안 협회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임원단을 구성했다.

해운대리점협회는 2월 11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4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8년도 사업 실적과 결산보고서,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승인했다. 또한, 전형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회장과 감사 2인 그리고 부회장 3명 이사 2명을 새롭게 구성했다.

이날 회장선임 전 회장대행 자격으로 개회사를 발표한 이재훈 협회장은 “매년 어렵다는 해운업 경기가 회원사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지만, 올해 해운업 전망은 다소 긍정적”이라며 “부정기전 부문에서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고, 정기선 분야에서도 과당 경쟁 구도가 완화되어가고 있어 올해에는 더욱 좋은 시장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한편 협회 내부로서는 전체 예산의 40%를 차지하는 임대 수익의 차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회원사들이 협회에 대한 관심을 더욱 기울여 줄 것을 부탁했다.

이날 협회는 각종 회의 개최, 운영·해운1,2·항만위원회 업무보고 등을 통한 사업실적을 발표했다. 특히 해운2위원회 산하 크루즈선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회의를 통해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방제비 할인 및 납부 방법을 ‘동북아시아 크루즈 중심으로’를 외치며 크루즈 선박 수백 항차 입항 유치를 목표로 노력하는 각 지지체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유예를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하기로 논의한 바 있다.

한편 협회의 올 사업추진 방향도 예년에 비교해 큰



변화 없이 회원사 업무지원 활동 강화, 제도개선 건의, 항만운영제도 개선 등의 정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2019년 협회 사업계획의 기본방향은 협회 운영의 내실화로 회원사 업무 지원 강화, 해운 선진제도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건의, 업계실태 파악으로 시장질서 확립 등으로 설정됐다. 정기선분과인 해운1 위원회는 각종 법령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해운2 위원회는 업체 간의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덤핑을 유도한 외국 선사를 공개하고 대리점 수수료 요율도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속초항 크루즈 선박 입항 관련 해결을 위해 부대시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협회는 사업보고 및 예산안의 원만한 통과 이후 새롭게 임원단을 구성했다. 부회장단에는 오오씨엘코리아의 김현정 사장, 한국머스크의 박재서 사장, 동진선박의 오영록 사장을 추가로 선임했으며, 인치케이프쉬핑 코리아의 김길수 부회장은 연임됐다. 신임 감사에는 페스코라인 코리아의 장민구 사장과 케이라인마리타임코리아의 이형욱 상무를 선임했다.

한편 협회는 오션네트워크익스프레스코리아, 원원통상, 덕상티에스라인즈 3개사가 신규가입해 총 117개 회원사를 꾸리게 됐다.



## 해양연맹 목포·울산 지방연맹 2곳 창설 · 해양아카데미 추가 개설

2월 21일 프레스센터 정기총회 및 신년인사회 성료

대한민국해양연맹(총재 김현겸)은 2월 21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정기총회 및 신년 인사회를 개최하고 2018년도 결산안 및 감사보고, 2019년도 예산안 및 주요사업계획안, 신입 감사·이사 인준 등을 안건으로 상정해 원안대로 승인했다.

김현겸 총재는 정기총회 개최사에서 “활동 영역 확장을 위해 지방연맹 2곳을 창설하고 해양아카데미를 추가로 개설한다”며 “해양수산부, 해군, 해경, 해양 관련 단체들과 함께 각종 사업 및 정책 토론회 등에 참여해 다양한 이슈에 대응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해양연맹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해양단체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양연맹은 위상 정립과 역할 강화를 위해 올해 목포와 울산에 지부(支部)인 전남목포해양연맹 및 울산해양연맹을 창설하고 초대 회장으로 목포신항만운영(주) 정환호 대표, 울산항만공사 고상환 사장을 임명(예정)했다. 2곳의 지방연맹이 창설되면 현재 6곳(부산, 인천, 강원, 경남, 제주, 여수광양)이던 지방연맹이 8곳으로 늘어 보다 원활하고 다양한 연맹의 활동이 기대된다.

해양연맹은 올해 주요 사업으로 해양관련 교육사업 강화, 대국민 홍보활동, 해양연맹 활동강화, 해양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해양문화 및 강화사업 등 2019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월과 5월에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한국해양교육연구회,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등과 해양분야 업무협력 및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또한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 해양분야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통일부와 통일분야 학술회의를 10월에 개최하고, 국가해양력 강화를 위해 11월에 해양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항로표지기술협회 류영하 전 이사장과 전 해군작전사령관 출신 이기식 이사를 부총재로 선출했으며, 김성찬 국회의원을 고문으로, 한원희 목포해양대학교 교수를 자문위원 겸 초대 광주전남해양아카데미 원장으로 위촉했다. 부산항만공사 남기찬 사장, 한국항로표지기술원 박계각 원장, 한국해운조합 임병규 이사장 등 10명을 대표자 변경에 따른 신입 이사로 인준하고, 목포신항만(주) 정환호 대표이사를 신규 이사로 선임했다. 또한 올해 2월로 감사 임기가 만료되는 장현길 변호사와 이문영 세무사에 대한 연임을 의결했다.

한편 이날 총회 이후 해양연맹 상임고문이자 성우회 회장을 담당하고 있는 유삼남 상임고문, 해양수산부 최준욱 해양정책실장, 부산시청 배병철 해양농수산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인사회도 개최됐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수산단체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 도선사협회 국가필수도선사 추천 규정안 의결

한국도선사협회(회장 임상현)는 2월 20일 도선사협회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1차 이사회 및 제4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이사회에서는 국제업무전문위원회 위원 선임, 협회 로스쿨 장학생 선발(안)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오후에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협회 임원 선임, 2018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 감사보고, 국가필수도선사 추천서 발급규정 제정(안) 등을



의결하고, 2019년도 도선수습생 선발(안) 확정해 중앙도선운영협의회 정기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 해운중개업협회 회비 장기 미납사 절반 제명

한국해운중개업협회(회장 염정호)는 2월 27일 선주협회 대회의실에서 2019년 정기총회를 열고 회비 장기 미납사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협회 사무국에 따르면, 장기 해운시황 불황으로 회비 미납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협회 재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56개 회원사 가운데 23개사만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사무국 직원 임금 50%를 삭감하는 등 긴축재정을 운영했으나 2018년말 기준 협회 유동자산은 약 100만원으로 올해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2018년 수입결산안에서도 1,500만원 가량 적자가 났다.

이날 협회 염정호 회장은 “협회가 운영되고 있는 재원은 오로지 회비이다. 현재 협회 존폐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회비 장기 미납사에 대한 제명처리는 협회 위상 차원에서 고민이 있었지만, 성실히 회비를 납입하고 있는 회원사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올해 유예기간을 주고 회비를 내면 협력해서 함께 가고 그렇지 않으면 정리하여 남아있는 회원사끼리 새 출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2019년말 기준 3년 이상 협회비를 미납한 회원사를 제명처리할 방침이다.



협회의 올해 예산안은 지난해 대비 2,000만원 감액된 4,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주요 추진 사업은 해운중개업무 지원 및 신뢰풍토 조성, 해운중개업 활성화 방안, 해운중개업 종사자 실무교육 내실화 등이다.

염 회장은 올해 협회 활성화에 다시금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염 회장은 “그동안 협회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정부에 건의해 왔으나, 법령개정과정에서 번번이 좌절되는 등 현재로서는 뚜렷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면서도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새로 시작한다는 자세로 정부당국과 협조하여 해운중개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나가겠다. 현재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 한국선급 신조발주 시장 점유율 3.8% 확대

한국선급이 2월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 5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회무보고 및 회원 변동에 관한 현황보고에 이어 2018년 결산(안) 승인의 건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선급은 지난 해 극심한 선급 간 경쟁 등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글로벌 마케팅을 활발히 추진한 결과 신조발주 시장 점유율이 전년 대비 3.8%가 확대되었으며, 비용 절감을 통해 흑자 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정기 한국선급 회장은 “올 한 해는 더욱 더 선급의 기본가치인 검사와 심사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며, “강화되는 환경 규제관련



정보와 최신 기술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고객 관점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조선·해운·기자재업계 등 관련업계와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예선업협동조합 해양선박 김기웅대표 이사장 선출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제7대 이사장에 김기웅 후보가 당선됐다.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은 2월 27일 컨싱턴호텔에서 치러진 정기총회에서 현 조합 이사인 (합자)해양선박 김기웅 대표가 제7대 이사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이사장 선거는 전임 장성호 이사장이 개인적인 사유로 사임함에 따라 새로운 이사장을 선출하게 됐다.

김기웅 신임 이사장은 조합원사에 한발 더 다가갈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공제사업 활성화 등을 통한 조합의 위상 제고는 물론 조합원사에 각종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웅 신임 이사장은 공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한국자유총연맹 충남도지부 회장(현), 충남 세파타크로협회 회장(전), 서천군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제2대, 제3대)(전), 이번에 제7대 이사장으로 당선되었고 임기는 2019년 2월 27일부터 전임 이사장의 잔여임기인 2021년 6월 30일까지 이사장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 부산국제선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2019년도 정기총회 개최

부산국제선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이사장 김영득)은 2월 21일 영도구 부산항국제선용품유통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8년도 수지결산 및 2019년도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 2006년 설립된 부산국제선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은 회원사 46개사를 두고 있으며 오는 11월 ‘제 64차 ISSA(세계선용품협회) 정기총회’를 부산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



## 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강호일 신임 이사장 취임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이 2월 21일 부산 파라곤호텔에서 제3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금번 총회에는 김도읍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국장, 부산광역시 신창호 미래산업국장 등 정관계 인사는 조선해양기자재 기업대표 등 업계는 물론 정부, 유관기관, 학계, 조선소 등 200여명의 조선해양산업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산학연관 및 대중소 상생을 위한 교류 행사가 진행되었다.

금번 제39회 정기총회에서 새로이 취임한 강호일 신임 이사장은 “전임 이사장님들과 조합 원사들이 쌓아온 조합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소통과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겸허한 자세로 조합 운영에 임하고자 한다”면서, “조합원 회원사들의 성원에 기대하며, 한국 조선 산업과 조합의 발전을 위해 부족하나마 모든 역량을 발휘해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조선해양기자재인의 날 행사에서는 2018년 한해, 조선해양산업의 발전에 공헌한 현대중공업(주), (주)세진중공업, (주)중합기계, (주)테크로

스, (주)파나시아 임직원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이 수여되었으며, 조선소와 조선기자재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국내 7대조선소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KOMEA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조선.해양 우수기자재 인정서’는 기득산업(주), (주)세진중공업, (주)정우카프링, (주)태양기전에 수여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비를 지원받아 구축중인 조선해양기자재 수요예측시스템 설명회도 진행됐다. 조합은 수요예측 시스템을 선박 수주에 따른 원자재 및 인력 수급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KOMEA는 “2016년도에 설립된 싱가포르 및 상해 지사를 시작으로 금년도 조합에서는 그리스 아테네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도 지사를 설립하고, 조선해양기자재수요예측시스템 구축과 전시사업 등을 통해 조선해양기자재 기업들의 경영 안정과, 국내외 진출을 위한 지원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통물협 제6대 회장에 판토스 최원혁 대표 선임

한국통합물류협회는 2월 26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회원사 대표 및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한국통합물류협회 박근태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회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판토스 최원혁 대표이사를 만장일치로 한국통합물류협회 제6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최원혁 신임회장은 성균관대 응용통계학과를 졸업하고 35년간 국내외 물류분야에 종사해 왔으며, 2015년부터 판토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최원혁 신임회장은 “물류산업과 업계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드리며,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박근태 전임 회장의 업적을 계승하는 한편 산적한 업계 현안을 해결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최 회장은 “회원사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협회 사무국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물류업계를 선도해 나가는데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고 회장으로서의 의지를 전했다.

이번 총회에는 국토교통부 백현식 물류정책관 직무대리(물류정책과장)가 물류산업 발전과 물류기업이 이뤄온 성과를 격려하고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다. 국토부 백



현식 물류정책과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우리나라의 물류산업을 대표하여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통합해왔고, 든든한 파트너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며 “올해 핵심과제인 생활물류서비스사업법 제정과 안전운임제 도입에 있어 한국통합물류협회를 비롯한 업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협회는 금번 총회에서 신임 회장 선임과 함께 2019년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의결도 진행했다. 협회는 2019년도 사업 방향을 ‘물류산업 선진화와 회원사의 권익보호에 기여’로 정하고, △정책대응 활성화, △물류산업 위상 강화 △회원 지원활동 확대 등을 핵심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안은 25억원이다.

## 해기사협 2019년 제1차 정기이사회 개최

한국해기사협회(회장 이권희)는 2월 19일 협회 회의실에서 2019년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018년도 사업실적 및 활동보고 △2018년도 감사보고서 채택 및 결산(안)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내역(안) △직원취업규정내 별표1-1 개편(안) △상임임원 보수 개편(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한편 해기사협회 제65차 정기총회는 오는 3월 27일 11시 부산 협성웨딩에서 개최된다.



## 해양소년단연맹 “조직역량 강화로 새로운 도약”

고문 정태순, 부총재 금창원·김일동·김철봉·이환구 신규 선임

해양소년단연맹(총재 정호섭)이 2월 21일 여의도 해운빌딩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성원보고, 개회선언, 국민의례, 의장인사, 안건심의, 폐회선언, 임원위촉패 및 공로패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2018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와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정관 및 제규정 개정(안), 임원 재선임 및 퇴임(안)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이날 연맹 부총재로는 한국해운조합 임병규 이사장이 추임됐으며, 남성해운 김용규 대표이사 사장, 우련통운 배요환 대표, 천경해운 서성훈 부사장이 부총재로 재선임됐다. 정태순 한국선주협회 회장은 연맹 부총재를 퇴임하여 신임 고문으로 선임됐고, 장금상선 금창원 부사장, 대륙상운 김일동 대표이사, 대한해운 김철봉 대표이사, 흥아해운 이환구 상임고문이 부총재로 신규선임됐다. 이밖에 흥아해운 박석목 전 대표, 대한해운 김용완 전 부회장,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장성호 이사장 등은 부총재에서 퇴임했다.

이날 정호섭 총재는 의장인사말을 통해 2018년 한 해동안 해양강국 건설과 연맹발전,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표했다. 또한 올해 중점사업을 통해 연맹이 처한 외부여건의 구조적인 어려움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조직 운영의 효율적 변화를 추구하며 나날이 발전하는 해양소년단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올해 사업 목표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조



조직역량 강화 기반 구축’으로 세우고 △조직체계 개선 및 재정자립 기반 확대 △연맹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정부 및 유관기관 업단체 협력 강화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전국단위 주요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해양소년단 2030비전을 수립하며, 지방연맹별 프로그램 특성화와 정부·유관기관 등 협력을 통한 재정자립 기반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송도해양레포츠센터, 상주 수상레저센터, 음성군 청소년수련원 등에서 30개 분야 142개 사업을 펼칠 계획이며, 특별사업으로는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찾아가는 생존수영교실 등이 있다. 2019년 연맹의 예산안은 33억 6,700만원이다.

2019년 연맹 주요 행사로는 아라뱃길 카약축제, 바다의 날 기념식, 전국카누드래곤보트대회, 김포마린페스티벌, 해양소년단리갯타, 전국해양스포츠제전 등이 있다. 한편 2018년말 기준 해양소년단연맹의 누적 단원수는 7만 5,000여명이다.



## 대한드래곤보트협회 “명실상부한 협회 경쟁력 제고 추진”

대한드래곤보트협회(회장 민흥기)가 2월 21일 해운빌딩 한국선주협회 9층 국제회의실에서 협회 임원 및 관계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8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을 상정 의안으로 승인처리했다. 민흥기 회장은 의장 인사말을 통해 2018년 지난 한 해 대한드래곤보트협회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격려와 지지를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2019년도에는 대한드래곤보트협회의 명실상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역대 참가국 규모의 국제드래곤보트대회의 개최와 국내외적으로 드래곤보트 동호인들의 활발한 참가를 유도하여 세계드래곤보트연합회(IDBF)의 회원국으로서 입지를 굳건히 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금년도 8월에는 태국, 파타야에서 열리는 세계드래곤보트선수권대회에 전국 드래곤보트 동호인 연합팀을 구성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자격으로 출전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렸다.

## 선원노련 다양한 선원복지제 · 권익향상 결의문 채택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정태길)은 2월 22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이벤트 B홀에서 대의원 135명과 유관기관 주요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정기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선원노련은 2018년 사업 및 결산을 보고하고, 2019년 사업계획안,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선원법, 지원정책, 고용안정, 정규직화 등 선원을 둘러싼 다양한 복지제도와 권익향상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선원노련 정태길 위원장은 “정부가 단계적 축소,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 휴



어·금어기 동안 생계를 위협받는 어선원들에 대한 지원 제도화 등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해 조합원들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 항만물류협회 17대 협회장에 동부익스프레스 김종성 대표

### 수석부회장에 (주)한진 류경표 대표 엄기두 국장 “부두 통합 계속 추진”

한국항만물류협회 17대 협회장에 (주)동부익스프레스의 김종성 대표이사가 취임했다.

한국항만물류협회는 2월 22일 2019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주)동부익스프레스의 김종성 대표이사를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17대 협회장직을 맡게 된 신임 김종성 협회장은 1981년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동원냉장과 동원로엑스 대표이사를 거쳐 2017년부터 (주)동부익스프레스 대표를 맡고 있다.

김종성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 항만물류시장은 물동량이 정체되고, 요율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임 회장으로서 회원사 권익을 위한 협회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련 기관과 협의 하고, 회원사로부터 신뢰 받은 협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년간의 임기를 마친 전임 손관수 협회장은 이임사를 통해서 “협회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반성도 해보면서, 여러 대의원 이사님들이 협조해주시고 지원해주시고, 힘도 실어주셔서 무사히 3년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회장선임과 함께 수석부회장, 부회장, 지방협회장, 이사, 감사 등 임기 3년의 새 임원진 구성도 이루어졌다. 수석부회장에는 (주)한진 류경표 대표, 부회장에는 KCTC 이준환 대표, 세방(주) 최종일 대표, (주)동방 이달근 대표, CJ대한통운(주) 윤도선 부문장, 인터지스(주) 정원우 대표, (주)선광 심충식 부회장이 선임됐다. 부산항터미널(주) 이준갑 대표 등 10개 지방협회장도 선임됐다. 이와 더불어 중앙협회 한규용 상무이사 와 울산항만물류협회 정진욱 상무이사를 재선임 했다. 새 임원단은 향후 3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2018년도 결산안 및 감사보



고, 2019년도 예산안 및 주요사업계획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해 원안대로 승인했다. 협회는 2019년 주요 사업계획으로 △항만시설보안료 통합 징수 후속 업무 및 보안요율 현실화 추진 △유해화학물질 컨테이너 전용 장치장 설치 △하역시장 안정화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 참석한 엄기두 국장은 부두 운영사 통합에 대한 효과는 분명하다며, 올해에도 부두 통합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엄 국장은 “작년 항만물류협회 총회에 와서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인천 내항 하역사 통합을 마무리했다. 통합 이전 하역사는 매년 60~70억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했는데, 통합 이후 안정화를 통해 올해는 40~50억원 가량의 흑자가 날 것으로 추정 된다. 만약 통합하지 않았다면 15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통합의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엄 국장은 “올해 인천항 다른 부분에서 통합을 논의하고 있으며, 부산북항 통합을 완료하고, 부산신항 통합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연구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인천과 부산 이외에 다른 항만에서도 통합을 희망하는 곳이 있어 협의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